

“4회 연속 종합 2위 이상 무”

■ 광저우 아시안게임 D-100

한국 41개 종목에 900여명 출전, 일본과 2위자리 놓고 접전

40억 아시아인의 최대 스포츠 축제인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하계아시안게임은 오는 11월 12일부터 27일까지 중국 광동성의 광저우에서 16일간의 열전을 벌이게 된다.

1990년 베이징 대회 이후 20년 만에 중국에서 개최되는 이번 아시안게임에는 45개국에서 1만2000여명의 선수단과 임원이 찾아온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개최 종목과 메달수도 역대 최대다. 수영·양궁·육상 등 42개 종목에 476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다. 크리켓, 댄스 스포츠, 드래곤 보트, 롤러 등이 새로운 종목으로 편입되면서 앞선 도하대회 때보다 금메달 수가 50여개 증가했다.

2010년 인천 대회부터는 종목수가 35개로 줄어들면서 광저우 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로 낙을 전망이다.

홀 어드밴티지까지 더한 중국은 8회 연속 종우승을 노리고 있다. 도하 대회에서 58개의 금메달을 따냈던 한국은 일본과 2위자리를 놓고 접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크리켓을 제외한 41개 종목에 900여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4회 연속 종합 2위를 노린다.

광주·전남 출신의 선수들도 메달 사냥에 나선다.

한국의 황금발인 양궁에서는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곽성출신의 주현정과 광주광역시청소속의 기보배가 '양'



광저우 아시안게임 D-100일을 이틀 앞둔 2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선수촌에서 국가대표 유도선수들이 러닝으로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궁드림팀’의 주축선수로 활약을 준비하고 있다.

‘금빛 윙크’로 베이징 올림픽의 스타로 떠올랐던 화순 출신의 이용대도 광저우에서 다시 한 번 금빛 스퍼트를 선보이게 된다.

한국 체조의 ‘신성’ 광주체고의 양학선도 눈길을 끈다. 양학선은 지난달 2010 재팬컵 국제초청체조대회 단체전에 출전해 도마에서 16.15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것이다.

한국은 크리켓을 제외한 41개 종목에 900여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4회 연속 종합 2위를 노린다.

광주·전남 출신의 선수들도 메달 사냥에 나선다.

한국의 황금발인 양궁에서는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곽성출신의 주현정과 광주광역시청소속의 기보배가 ‘양’

한국 승마의 대표주자 최준상도 2일 경기도 과천시 KRA 승마장에서 열린 광저우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하며 태극마크를 달았다.

처음으로 정식종목에 채택된 바둑에서는 신안 출신의 이세돌이 이창호와 후톱을 이뤘다. 바둑 종목에는 총 3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다.

KIA 타이거즈의 사령탑 조현범 감독도 야구대표팀을 이끌고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의 영광 재현을 위해 광저우를 찾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angju.co.kr



장성호에서 대통령기 조정대회

제 26회 대통령기선수권대회가 오는 11일부터 3일간 장성호 조정경기장에서 열린다.

장성군 체육회가 주관하고 장성군과 대한조정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51개팀 남녀 5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일반부, 대학부, 고등부, 중등부로 나눠 싱글스컬과 더블스컬, 무타페

어, 에이트 등 34종목에서 열전을 벌이게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수상스포츠의 메카로 광주를 대표하는 장성호에서 2008년 전국체전, 2009년 전국조정선수권대회 등을 해마다 3년 연속 전국대회를 치르고 있다”며 “이번 제26회 대통령기 조정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수상 스포츠 저

11일부터 3일간 조정경기장

전국 51개팀 500여명 참가

변 혁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장성호 인근에는 전국 시도의 16개팀 300여명이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회가 열리는 장성호는 경관이 수려하며 수상스포츠를 즐기기에 뛰어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옹호기자 yongho@

최나연·김인경 공동 3위

브리티시 오픈 청야니 우승…신지애 공동 14위

대만의 골프스타 청야니(사진)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통산 세번째 메이저 우승컵을 차지했다.

청야니는 2일(한국시간) 잉글랜드 사우스포트의 로열 버크데일 골프링크스(파72·6458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우승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흔들리며 1타를 잊었지만 전날까지 벌어놓은 타수 덕분에 리드를 끌까지 지켜 함께 11언더파 277타로 서서히 험(호주, 10언더파 278타)의 추격을 1타차로 끌었다. 우승 상금은 40만8천달러.

신인 시절이던 2008년 메이저대회 맥도널드 LPGA 챔피언십을 제패하며 혼성같이 등장한 청야니는 21세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올해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에 이어 브리티시여자오픈까지 우승하며 메이

저대회에서 유난히 강한 면모를 보였다. 통산 4승 가운데 3승을 메이저대회에서 수확한 청야니는 US여자오픈만 우승하면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다.

한국의 최나연(23·SK텔레콤)과 김인경(22·하나금융)도 추격전을 펼쳤지만 벌어진 타수를 극복하지 못하고 나란히 공동 3위(7언더파 287타)에 올랐다. LPGA 투어 KIA 클래식에서 우승했지만 아직 정규 멤버가 아닌 서희경(24·하이트)은 4라운드에서 2타를 줄이며 함께 11언더파 282타를 적어내 양희영(21)과 함께 공동 5위(6언더파 282타)에 자리하며 메이저대회에서 처음 텁10에 드는 선전을 펼쳤다.

이밖에 박인비(22·SK텔레콤)와 김초롱(26)이 공동 9위(2언더파 286타)에 오르는 등 한국 및 한국계 선수 6명이 텁10에 들었다.



2년만에 정상 탈환을 노렸던 신지애(22·미래에셋)는 1타를 잊고 공동 14위(1언더파 287타)로 밀렸다. 신지애는 앞서 열린 세 차례 메이저대회에서 모두 텁5안에 드는 좋은 성적을 냈지만 이번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는 10위 밖으로 떨어져 아쉬움을 남겼다. 위성미(21·나이키골프)는 이븐파 288타로 공동 17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전남제일고 수구 전국 정상

회장배 결승 경남체고 12-4 꺾어

전남제일고가 제6회 회장배 전국중별 수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전남제일고는 2일 김천수영장에서 열린 경남체고와의 경기에서 12-4로 이기며 4승1패로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풀리그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전남제일고는 강원체고에게 10-13으로 졌지만 경남체고, 전북체고, 경남·북체고와의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며 승점

아자렌카, 샤라포바 꺾고 우승

여자프로테니스투어

빅토리아 아자렌카(18위·벨라루스)가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뱅크 오브 더 웨스트 클래식(총상금 70만 달러)에서 우승했다.

아자렌카는 2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텐포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승에서 마리아 샤라포바(15위·러시아)를 2-0(6-4 6-1)으로 꺾었다.

개인 통산 네 번째 투어 우승을 차지한 아자렌카는 우승 상금 10만 7천 달러와 함께 다음 주 세계 랭킹에서 12위에 오른다. 샤라포바와 상대 전적에서도 2승2패로 균형을 맞췄다. /김여울기자 wool@kangju.co.kr

/연합뉴스

8월 5일(화)

▲e-조선산업회 전북 경주 짐수 짐수(4인1수) 8시 광주역 출발(은평구 원 경유) *다음카페: 광주아주수인여학 T.011-601-2469

8월 5일(화)

▲e-조선산업회 전북 경주 짐수 짐수(4인1수) 8시 광주역 출발(은평구 원 경유) *다음카페: e-조선산업회 T.010-8591-0091

▲빛고을목业인회 경남 산청군 차성면 혁봉길 651m 8월5일(화) 7시 20분 예운문동 동이법원 출발(7:30 현대서비스 8:00 광주역 8:10 문예회관 후문) *다음카페: 빛고을목业인회 T.010-5441-8845, 011-605-5311

▲광주한국산업인회부원도(광주) 8월5일(화) 7시 20분 예운문동 정부 청사(8:00 문예회관 후문) *다음카페: 광주한국산업인회부원도(광주) T.010-615-2279, 010-4913-7897

▲월광주한국산업인회부원도(광주) 8월5일(화) 7시 20분 예운문동 청사(8:00 문예회관 후문) *다음카페: 월광주한국산업인회부원도(광주) T.010-601-9239

8월 6일(수)

▲e-조선산업회 전북 경주 짐수 짐수(4인1수) 8시 광주역 출발(은평구 원 경유) *다음카페: e-조선산업회 T.010-8591-0091

8월 6일(수)

▲빛고을목业인회 전북 경주 짐수 짐수(4인1수) 8시 광주역 출발(은평구 원 경유) *다음카페: 빛고을목业인회 T.010-5441-8845, 011-605-5311

8월 7일(목)

▲e-조선산업회 전북 경주 짐수 짐수(4인1수) 8시 광주역 출발(은평구 원 경유) *다음카페: e-조선산업회 T.010-8591-0091

8월 7일(목)

▲빛고을목业인회 전북 경주 짐수 짐수(4인1수) 8시 광주역 출발(은평구 원 경유) *다음카페: 빛고을목业인회 T.010-5441-8845, 011-605-5311

8월 8일(금)

▲e-조선산업회 전북 경주 짐수 짐수(4인1수) 8시 광주역 출발(은평구 원 경유) *다음카페: e-조선산업회 T.010-8591-0091

8월 8일(금)

▲빛고을목业인회 전북 경주 짐수 짐수(4인1수) 8시 광주역 출발(은평구 원 경유) *다음카페: 빛고을목业인회 T.010-5441-8845, 011-605-5311

8월 9일(토)

▲e-조선산업회 전북 경주 짐수 짐수(4인1수) 8시 광주역 출발(은평구 원 경유) *다음카페: e-조선산업회 T.010-8591-0091

8월 9일(토)

▲빛고을목业인회 전북 경주 짐수 짐수(4인1수) 8시 광주역 출발(은평구 원 경유) *다음카페: 빛고을목业인회 T.010-5441-8845, 011-605-5311

8월 10일(일)

▲e-조선산업회 전북 경주 짐수 짐수(4인1수) 8시 광주역 출발(은평구 원 경유) *다음카페: e-조선산업회 T.010-8591-0091

8월 10일(일)

▲빛고을목业인회 전북 경주 짐수 짐수(4인1수) 8시 광주역 출발(은평구 원 경유) *다음카페: 빛고을목业인회 T.010-5441-8845, 011-605-5311

8월 11일(월)

▲e-조선산업회 전북 경주 짐수 짐수(4인1수) 8시 광주역 출발(은평구 원 경유) *다음카페: e-조선산업회 T.010-8591-0091

8월 11일(월)

▲빛고을목业인회 전북 경주 짐수 짐수(4인1수) 8시 광주역 출발(은평구 원 경유) *다음카페: 빛고을목业인회 T.010-5441-8845, 011-605-5311

8월 12일(화)

▲e-조선산업회 전북 경주 짐수 짐수(4인1수) 8시 광주역 출발(은평구 원 경유) *다음카페: e-조선산업회 T.010-8591-0091

8월 12일(화)

▲빛고을목业인회